



2018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실무협의체 위원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사항 공유 등을 위한 『2018년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결과 보고임.

개요

- 일 시 : 2018. 04. 25.(수), 10:00
- 장 소 : 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석인원 : 총 27명
 - ▶ 실무협의체 위원 : **35명중 21명 참석(60.0%)**
 - 참석위원 : 21명(민 12명, 공 9명)
황재경, 박세준, 김윤희, 권미영, 박근중, 이성호, 이영설, 장미선, 장민자, 장선경, 조여옥, 최정화, 황의숙, 김수정, 김인배, 김일기, 오영석, 이소희, 남동학, 전교영, 홍명숙. 이상
 - 미참석위원 : 14명(민 8명, 공 6명)
김금순, 김민정, 정육환, 송명은, 오민수, 유혜숙, 전상원, 주경희, 김상길, 신철승, 이명식, 이운순, 이동현, 최승래. 이상
 - ▶ 복지여성국 복지허브화추진단 : 김남화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운범, 이주미, 김기강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그간의 추진실적
- 2018년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위원변동 사항

2. 실무분과 운영사항 공유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등

3. 교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위원의 역할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

회의결과

I. 보고사항

① 그간의 추진실적

- 의견 없음

② 2018년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의견 없음

③ 위원변동사항

- 실무분과 : 위촉 7명, 해촉 3명(신규위원 추천 및 기관 인사이동 등)
- 논의내용

이 름	내 용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장)	○ 위원변동사항에서 가족여성회관 직원변경 관련 후임자로 선정 요청.

박창재 (사무국장)	○ 운영세칙에 후임자 선정은 분과에서 논의하여 위촉함.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장)	○ 최초 구성할 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기억이 있어 질의함.
박창재 (사무국장)	○ 기수별 최초 구성시에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함. 이후 결원시에는 분과에서 선정함으로 추천서를 공문으로 요청 함.

II. 실무분과 운영

①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의견 없음

② 실무분과 회의운영

- 논의내용

이 름	내 용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	○ 장애인분과는 영역이 생애주기별로 되어 있음. 장애인분과에서는 주거에 대해서 다루기가 어려움. 욕구가 높은데도. 영유아 분과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도 있음. 우리분과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다루겠지만 다른 분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박창재 (사무국장)	○ 각 분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타 분과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가능할 것임. 1차 논의된 내용을 가지로 전체 정리 작업을 통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음.

III. 교육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의 역할

- 강사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
- 주요내용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족도 조사 결과
 -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제
 - 실무협의체의 역할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최정화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실무협의체가 중요한 회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 못했을까 생각이 들었음. 구조적인 문제, 회의의 분위기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음. 이영설 원장님 의견과 같이 각 고민들을 다른 분과와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공유되었으면 좋겠음.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 연구기획분과의 고민점은?
최정화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전략을 세우고 세부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는데 신생분과로 세워진 세부사업이 없음. 연구기획분과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해주면 도움이 되겠음.
장미선 (수원지역자활센터장)	○ 교육을 받고 나서 해야할 숙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됨. 일자리분과의 경우 일자리만 담당을 해도 너무 많은 영역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계획에 다 담기 어려운 상황임. 일자리 영역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음. 최우선 과제를 하나 만들기는 했음. 복지일자리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임. 그 부분에 대해 의견 및 조언을 주면 좋겠음.
박근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부장)	○ 모든 분과들이 논의하다보면 주거로 연결될 것임. 당일 만나서 토론하자 하면 안될것임. 분과에서 타분과와 연계해야 할 부분을 미리 고민해서 뿌려주면 분과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높은 참석률은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함. 지역의 욕구등을 반영해서 고민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장선경 (수원체육문화센터 팀장)	○ 85%가 신규위원이며, 위원 변동이 잦은 상황으로 연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추진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음. 워크숍에서 집중논의가 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고 세부사업의 영역을 분류해서 세부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 실무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교육받음으로써 그간의 고민이 명확해 짐을 느꼈음.
조여옥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 4기 추진계획에는 수원사업만을 했기에 분과에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분과의 경우 수원시 자체 사업이 거의 없음. 거의 중앙정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분과에서 정책이나 시민참여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임. 주로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교육, 검토했고 예산분석을 했음. 이야기 한것처럼 수원만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여성가족 관련 수원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면 수원만의 정책과 내용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함.

이 름	내 용
장민자 (학춘유치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관련 고민이 많음 분과임. 토론, 수원시 영유아복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타분과(장애인, 이주민)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벤치마킹도 기획하고 있음.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년 계획을 몇 개월 내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도 됨. 특색있는 방향이 지자체 사업만 담는 것인데 세부적인 방향이 없지 않나 생각됨. 사업을 먼저하고 나중에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문장으로만 맞추는 느낌이 있음. 예를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달성하자 이런식의 구체적인 하나의 축이 있었으면 좋겠음.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치프레이즈나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분과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음. 시민 입장에서 참여하셨거나 처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면 좋겠음.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중심으로 이야기 하자면 분과위원으로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무분과에서 논의하고 어떤일을 하고자 할 때 기관장으로 왜 하나고 막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음. 복합문화시설인데 여러방향에서 연계하고 있는데 기관 차원이지 지자체나 지역사회 단위의 연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다수 이용 시설들에 대한 사업들이 보장계획의 내용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함. 시민건강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돈과 여유가 있어 배우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사회적 비용이 경감된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하기도 함. 시민건강과 생활체육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임.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기에 분과들이 세분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임. 각 분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연결이 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 4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초연결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함께 공동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각 분과에서 어떻게 지표를 만들도 서로 다르게 진행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실무협의체에서 조정과 연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남동학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부분 새겨 들었음. 당연직 위원들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용해 주면 좋겠음. 여성청소년과 자체가 사회적 약자와 연결된 부분이 많으니 많은 활용 바람.
김인배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재원배분하면서 간과한 것은 아닌데 시 수요에 비해 재원이 여의치 않다보니 항상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됨. 민과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소통을 잘하자 하는 교육 내용이 와닿았음. 각 분과의 좋은 시책들 좋은 정책들을 소통을 해서 시책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이 름	내 용
김일기 (노인복지과 노인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체를 많이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많겠다 생각이 듦. 4기 계획수립하면서 느낀 점은 노인복지 영역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관에서 추진하다 보면 4기는 지자체 사업만 간다는데 시에서도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에서만 추진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음. 상부의 승인이나 예산투입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은 이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음.
전교영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분과와 다 연관이 많다고 생각함. 각 계층별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층은 공공일자리가 많은데 여성일자리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없고 장애인, 자활 등 지자체 사업이 없음. 앞으로 분과활동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일자리사업은 예산계에서 일자리 사업은 잘 반영이 되고 있으니 일자리가 필요한 영역에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수정 (복지허브화추진단 복지자원관리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도 늦어지고 욕구조사 결과도 안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었음. 분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음. 많은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지원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음.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협의체가 각 분과의 허브역할을 하고 유기적 체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함. 위상과 역할에 맞는 회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시민참여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각 분과별로 시민참여의 기제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고민을 하면 좋겠음. 지속적으로 각 분과별로 시민위원에 대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함. 연구기획분과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펼쳐낼 수 있도록 분과별 초연결에 대한 고민을 연구기획분과에서 해주면 좋겠음. 경기도지사 선거에 지방분권 입장에서 지자체 의견을 제안하는 것. 예산분담에 대해 30% 매칭을 기본으로 해달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어려운 지역에 더 줄수 있겠지만 기본은 보장을 해달라는 제안을 실무협의체가 하면 좋겠음.
김인배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부단체, 재정력이 좋은 단체는 차등지원이 됨. 저희 나름대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제안하는 것이 도비 지원 30% 유지하라, 신규일 경우 50%는 보장을 해라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었음. 근데 그것이 31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 시기에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속 주장하겠지만 선거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음.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회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회의참석률과 회의질을 높여야 할 것임. 많은 노력을 요청함.

이 름	내 용
박창재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과참여를 하지 않는 위원들은 정보단절의 문제가 있음. 단독방을 활용해서 의견교류를 활발히 해 주면 좋겠음. 신규사업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함.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면 될 것임. 포스터 홍보 협조 요청.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8년 제2차 실무협의회의(2018.4.25.)

